

“문화카드 어디서 쓰나요”



수십억 예산, 사업 확대에도

다양한 사용처 확보는 소홀

광주 64%·전남 53% 줄어

내년부터 바우처카드 통합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해야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이 정부로부터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사용처(가맹점)가 지난 해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등 사용자들이 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카드 발급과 사용물만을 높이는 데 급급, 정작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모두 600여곳에 달하던 문화카드 사용처가 올해는 220여곳으로 380여곳(64%)이 줄어들었으며, 전남도 지난해 380여곳에서 올해 180여곳으로 200여곳(53%)이 감소했다.

광역시별 문화카드 가맹점 수는 인천 244곳, 대전 256곳, 대구 365곳, 부산 441곳, 울산 165곳 등으로 광주(220곳)는 울산 다음으로 가맹점이 적다. 울산이 문화카드 발급 가능 매수인 9326매 중 9127매를 발급하고, 광주가 3만8955매 중 3만7498매를 발급한 것을 감안하면 발급비율 대비 가맹점 수에서는 광주가 6대 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문화카드 가맹점은 경기 965곳, 강원 200곳, 충남 207곳, 충북 183곳, 경북 299곳, 경남 350곳, 전북 315곳, 제주 129곳으로 전남(180곳)의 경우 가맹점 수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해남의 경우 서점 2곳에서만 문화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남 도내 시·군의 편차도 크다.

올해 전체 문화바우처 예산 대비 문화카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문화카드로 장보는 날’ 행사 모습.

드 예산비율은 광주는 23억1800만원 중 18억5600만원, 전남은 31억5300만원 중 18억9200만원이다. 두 기관은 각각 8대 2와, 7대 3의 비율로, 문화카드 사업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문화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해마다 문화카드 사용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문화카드 가맹점이 격감한 원인은 2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 때문이다.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이 카드 발급률과 사용 실적률을 높이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용자 발굴을 소홀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주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 서류상 문화관련 사업체로 등록된 가맹점을 사전조사 없이 사용처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업종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들이 많아, 이를 제외하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 사업부터는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카드가 통합(가구당 10만원, 청소년 5만원 추가) 운영된다. 다양한 카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초부터 문화·여행·스포츠 통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맹점을 발굴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문화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업종보다는 상업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문화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술로 나누는 ‘소통·사랑’전

국유미술관 21일까지... 수익금 전액 이웃에 전달



윤영월 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국유미술관(관장 윤영월)은 연말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지역민들과 사랑을 나누는 ‘소통·사랑의 나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이번 전시에는 올 한해 국유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졌던 이상필, 변재현, 전현숙, 김원익씨를 비롯해 국공호·윤영월 부부와 국공호씨 등이 참여해 서양화, 조각, 서예,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이상필씨는 ‘b-boy pinocchio’ 등 피노키오를 통해 명품을 선호하는 현 세태를 지적하는 작품을, 변재현씨는 화려한 색감으로 화폭을 물들인 ‘환희’ 등 작품을 전시한다.

전현숙씨는 현대인의 모습을 조형언어를 무시한 대담한 필치로 그린 ‘흐르는 대로 맡겨둬’ 등을 선보인다.

윤영월 관장은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지역민은 물론 작가, 어려운 이웃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문의 062-232-733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도자와 회화가 어우러져...

은암미술관 15일까지 김순식 ‘Flying Donkey II’전



은암미술관은 오는 15일까지 김순식씨를 초대해 ‘Flying Donkey II’전을 개최한다.

광주 출신인 김씨는 도자와 회화를 접목한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묵화와 프레스코 회화 작업을 해온 그는 1990년 이후부터 새로운 표현방법인 도예미술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했다.

이번 전시 작품에서 작가는 당나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익살스럽고 냉소적으로 표현한다. 세상과 자신에게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다. 찬조 작가로 참여하는 조재호씨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씨는 중국 정대전 도자대학과 도자연구소에서 교환 연구 작가로 유학생활을 했으며 중국 고대 청화기법, 상화채색기법을 전수받은 국내 유일의 중국정부가 인증한 고급공예가이기도 하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판소리 유파발표회, 오늘 문예회관

동편제와 서편제, 중고제, 강산제의 독특한 멋과 가락을 접할 수 있는 판소리 유파발표회가 12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유파발표회는 명창들이 출연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을 동편제, 서편제, 강산제 등 유파별로 선보이는 무대다.

이번 공연에서는 박지운 명창의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김선미 명창의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 고현미 명창의 수궁가 중 계변양류~일개한뢰 대목, 주소연 명창의 적벽가 중 군사살을 대목, 전인삼 명창이 흥보가 중 놀보 박타는 대목을 들려준다. 문의 010-4153-089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樂&音’

나주시립국악단, 오늘 정기공연



나주시립국악단이 12일 오후 7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정기공연 ‘樂&音’을 공연한다.

이대휴 전 광주국악협회장이 상임지휘를 맡고 있는 나주시립국악단은 지난 2012년 나주삼현국악연구단을 확대 개편한 단체로 기악·창악·무용·사물놀이

등 28명의 단원이 활동중이다.

정기 공연의 전반부는 국악관현악과 다양한 소리(音)로 엮은 남도아리랑, 춤, 가야금병창 민요연곡, 설장구 협연곡 ‘소나기’, 남성합창 ‘필레꽃’ ‘쓰리랑’으로 꾸렸다.

후반부에서는 지역문화뿌리 찾기 일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나주 셋골나이가 길쌈놀이 연행의 배틀노래와 나주타령, 왕곡면에서 행해졌던 집터 다지는 지경타이를 연희적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나주시립국악단은 국제행사과 전국규모행사 초청공연, 나주 금성관 상설공연과 나주주말상설공연 ‘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석 초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